



역무원들이 이용하던 영주역(驛) 관사는 일제강점기 때 지은 건물로 일본식 관사주택의 전형이다. 관사와 관사 사이에 담장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조선시대 전설이 전해오는 영주동 근대한옥은 1920년대 신축돼 별채만 볼 수 있다.

영광이발소는 지금도 1930년대 방식 그대로 이발하고 면도하고 세발(머리 감기)한다.

# 시간이 멈춘 곳 유유자적...오늘은 내가 '모던보이'

산책하기 좋은 곳 영주시 근대문화유산 속으로

## 경북

경북 영주시, 철도교통의 요충지다보니 먼저 들어선 게 많았다. 철도 중앙선과 영동선이 깔리자 역이 중심지로 돋보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몰렸다. 역 주변에 시장이 생겼다. 정미소가 생겼고, 모던보이들의 헤어스타일을 책임지는 이발관이 자리잡더니 교회가 반석 위에 신앙의 증거를 세웠다. 자원과 자본의 발달상, 문화의 전개상을 멀리서 찾을 것도 없다. 개중 여태 살아남은 것들 중 일부가 '근대문화유산'이란 훈장을 달았다. 영주, 평지다. 북쪽의 소백산이 병풍처럼 막아주고 남쪽으로는 안동까지 열려있다. 문득 근대문화유산들을 '산책코스'로 삼아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 ◇ 근대역사문화거리

일본식 관사·목재 도정기계 정미소 1930년대식 방식 고수 영광이발관 명나라 황제가 지어준 영주동 한옥

한국전쟁과 개발논리에도 살아남은 건물 6채가 근대역사문화거리의 주축이다. 영주역 관사 2곳, 근대한옥, 이발관, 정미소, 교회와 각 1곳이다. 모두 영광중학교 남경 200미터 남쪽에 들어온다.

먼저 1940년대 건립된 우기집(81) 옹의 '풍국정미소'다. 풍국정미소의 처음이자 끝은 도정기계다. 목재 구조다. 먼지가 내려앉은 게 수년간 영업을 하지 않은 듯했다. 2009년에 마지막으로 영업을 했다는 보도도 있으나 우 옹은 "2년 전 마지막으로 기계를 돌렸다"고 했다. 영업은 2009년에 끝내고 2016년에 점검차 돌려봤겠거니w 짐작했다.

"1966년부터 내가 영업을 했다. 80kg 17마를 도정해주고 2되(3.6리터로 3.6kg에 근접)를 현물로 받았다. 정부에서 정해준 대로 받았다. 1980년에 영주시내에 정미소가 11곳 있었는데 우리 집에서 80%를 처리했다. 하루에 많이 하면 80가마씩 했다. 1시간에 8가마 정도. 그런데 요즘 농협에서 돌리면 1시간에 35가마를 한다. 경쟁 상대가 안 된다."

영주시는 이곳을 양곡 가공과 곡물 유통을 주제로 산업문화관, 쌀카페, 도정 참관 및 판매장으로 활용하면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만 하고 있지 시설은 없다. 일부에서 이런 시설이 있는 것처럼 해봤는데 아직은 없다.

영광중학교 정문 왼쪽에 '영광이발관'이 있다. 193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 가지 목적으로 지금까지 활용된 것이 특이점이랄까, 건물 자체는 그냥 그런 건물이다. 노포인 것만은 확실했다. 이발관 문턱을 넘자마자 포르말린 냄새가 확 끼쳐왔다. 소독 용도였는데 일시적 후각마비는 소독의 부작용이었다. 이발사 이종수(74) 옹은 이곳에서 49년째 생업을 잇고 있었다.

"그 전에 하던 사람이 있었지. 내가 이 자리에 온

게 1970년이거든. 요 앞전에 시은, 국제 뭐 이름은 여러 번 바뀌었어. 손님 맞는 거야 안 변했지. 옛날 방식으로 이발하고 면도하고 세발(머리 감기)하고 있지. 건물 주인은 따로 있어."

광복로에서 북쪽으로 나있는 길로 향했다. '관사골'이 이내 나온다. 관사골이라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 수 있을 만큼, 집들을 틀에 맞춰 찍어낸 느낌이다. 1호 관사도 남아있지만 원형 보존 등을 감안해 5호와 7호가 등록문화재로 추천됐다. 일제강점기 때 지은 건물로 일본식 관사주택의 전형이라고 한다. 창이 바깥으로 튀어나온 점, 시멘트 기와 지붕이라는 점이 외관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부였다.

영광중학교 서편 길 아래 '영주동 근대한옥'이 있다. 영주문화원에 따르면 거의 전설에 버금가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조선 명종 때인지, 선조 때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임진왜란 전에 명나라 황제가 어머니의 병을 고친 의원 이석간에게 보답으로 99칸 본채와 여러 채의 별채를 지어주었다고 한다.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별채인데 그마저도 1920년에 신축한 거라고 한다. 영광중학교 서편 길 아래 뒷밭에 웅크린, 매우 낡은 지붕이 두드러지는 집인데 사람이 살고 있다.

1958년 준공된 '영주제일교회'는 더 이른 시기에 준공된 안동예배당과 견줄 양식 등이 많은 듯하다. 1954년 5월부터 교회 신도들의 노역 봉사가 더해져 이들에게 더 의미있는 성전이라고 한다.

### ◇ 걷기 좋은 영주

영주도서관엔 통일신라 보물 60호 장관급 3명 배출한 '삼판서고택' 구성마을엔 기암괴석이 다닥다닥

영주세무서 옆 옛 영주도서관을 출발지로 삼았다. 옛 영주도서관에선 보물급 문화재가 맞아준다. 통일신라 중기, 그러니까 서기 800년대 즈음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보물 60호 '영주동 석조여래입상'이다.



영주제일교회는 1954년 5월부터 신도들의 노역 봉사가 더해져 1958년 준공됐다.

고개를 조금 더 오른쪽으로 꺾히자 고택이 지붕만 살짝 보여준다. '삼판서고택'이다. 말 그대로 3명의 장관급 인물이 난 집이다. (고려시대 형부상서를 지낸 정운경, 공조전서를 지낸 정운경의 사위 황유정, 그리고 황유정의 외손자 김담이 조선의 이조판서에 오르면서 삼판서가 완성된다.)

그런데 안내판에는 조선 개국 공신인 '정도전 생가'라고 돼 있다. 도담삼봉 등으로 스토리텔링에 심혈을 기울인 옆 동네, 충북 단양에서 알면 팔짝 뛸 것 같았는데 이미 알고 팔짝 뛰었다고 한다.

좋은 터에 집이 있어서 삼판서가 나왔나 싶지만 원래 터는 이곳이 아니었다. 다음 코스로 가게 될 구성공원 동쪽에 있던 고택은 1961년 사라호 태풍 때 유실돼 이곳에 새로 지은 것이었다.

그래서 삼판서고택 뒤에는 1962년 당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지시로 수해를 복구한 것을 기념해 심은 나무와 설명판이 있다. 안타깝게도 이것 역시 1962년 당시 심은 나무나 아니냐로 이견이 분분하다고 한다.

서천 둔치를 따라 달려도 좋겠다 싶었지만 시내 방향인 동쪽으로 향한다. 영주시내로 오려면 한 번쯤은 마주친다는 중앙선 지하도를 지났다. 구성마을이라는 곳이 나온다. '거북이상'이란 뜻이다. '불바위'를 대표로 거북이 등껍질 같은 기암들이 마을 한가운데 다닥다닥 올라 서 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매일신문 김태진 기자 jiny@msnet.co.kr /사진=매일신문 이재근 기자



1940년대 건립된 '풍국정미소'. 목재로 만든 도정기계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광주일보 江原日報 경남신문 경인일보 대전일보 충북신문 부산일보 臺北日報 제주新보

新韓道友誼 한국지방신문협회 9개 회원사가 공동 취재·보도합니다.

관주점 since 1981 37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한정식 A코스 50,000 | B코스 40,000 | C코스 30,000  
일품요리 굴비정식 | 삼합정식 | 떡갈비정식 | 황태찜정식 | 새우튀김정식 22,000

대를 이은 가족모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족 모임이 시작되는 각별한 인연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흥플러스 건너편